

## 章黃학파의 언어연구 초탐

김 혜 영\*

### <目次>

- |                         |               |
|-------------------------|---------------|
| I. 서론                   | IV. 근원연구의 방법론 |
| II. 小學의 재해석             | V. 결론         |
| III. 언어, 문자의 의의와 그 근원연구 |               |

### I. 서론

본고는 장황학파라 불리는 章炳麟(1868~1936)<sup>1)</sup>, 黃侃(1886~1935)<sup>2)</sup>의 언어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언어관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병린은 근대 중국사에서 사상가, 혁명가로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으며 언어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말년에 國學講習會를 열어 小學, 經學, 史學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힘쓰며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 가운데 《新方言》(1908), 《文始》(1910), 《小學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1) 이름은 學乘, 字는 枚叔으로 顧炎武를 추종하여 후에 호를 太炎으로 지었다. 浙江省 餘杭縣에서 태어나 俞樾, 黃以周 아래에서 수학했다. 무술변법시기 強學會에 가담하고 《時務報》를 편찬하며 개량사상을 전파했다. 무술변법 운동 실패 후, 대만, 일본의 동맹회에서 활동하며 《民報》의 주편을 맡기도 했다. 1913년 무렵부터는 국학강습회를 열어 강습, 저술 활동에 매진했다.
- 2) 字는 季剛, 季子로 湖北省 蕪春縣 사람이다. 1905년에 일본에서 유학하였으며 당시 장병린의 국학강습회에서 수학했다. 장병린과 함께 전통 언어학을 계승하고 소학을 집대성했다. 신해혁명 후에는 귀국해서 교육에 힘쓰며 武昌高等師範學校, 北京大學校, 東北大學校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答問》(1910) 등은 언어연구에 해당하며 그 밖에도 《煊書》(1900), 《國故論衡·上篇》(1910) 및 다수의 발표문, 소논문에도 언어, 문자에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황간은 여러 제자 가운데 언어학 영역에서 장병린을 계승한 인물로, 그와 함께 국학대사라 불리며 章黃之學, 章黃學派를 이루었다. 황간은 많은 저서를 남기지 못했지만 그의 사후에 제자, 후손들이 편찬한 《黃侃論學雜著》(1969), 《文字聲韻訓詁筆記》(1983)를 통해 그의 언어관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 언어학사에서 장황학파의 언어연구는 전통 언어학과 현대 언어학의 전환기에 위치하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이들은 건가의 段王之學을 계승하여 전통 언어 문자학, 소학을 집대성한 최후 인물들이며 동시에 중국 언어학의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언어학 체계를 계발한 현대 언어학의 창립자로 평가되기도 한다.<sup>3)</sup> 이와 같이 장황학파의 언어연구는 고대 중국 언어학, 소학의 끝과 현대 언어학의 시작의 경계점에 위치하며 ‘앞을 계승하고 뒤를 계발한 점[承前啓後]’에서 중요하다.

기존의 중국 언어학사, 언어학계는 장황학파 언어연구의 이와 같은 언어학사적 지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언어문자학의 명칭제기, 고음연구, 어원연구 등등의 측면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다. 따라서 당시 시대적, 언어학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언어연구의 특징, 의의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 본고에서는 장황학파의 전통 언어학, 소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언어관 및 연구목표, 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小學의 재해석

우선 장병린, 황간의 소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찍이 장병린은 언어문자학[語言文字學]이라는 명칭을 제시하며 소학의 명칭에 대해

3) 章炳麟, 陳平原 編, 《國故論衡·導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12쪽 참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3가지(자형, 음운, 훈고)를 합쳐서 ‘언어문자학’을 이룬다. 이는 본래 아이들이 통독하는 나이에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소학이라 명명하는 것은 옛 명칭을 계승한 것으로 가리키기에 편리하다. 실상 어언문자학이라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sup>4)</sup>

“지금의 소학이란 중국의 문자, 성운, 훈고의 학문이며 허씨가 말한 육서이다. 복잡하여 들기 어려우니 고로 육서를 가르치는 학문으로 명명한 것이다. 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명칭이 이와 같을 따름이다. 처음에는 그 학문이 끝임을 말하지 않았으며 字를 일컬어 소학이라 한 것이다.”<sup>5)</sup>

장병린은 ‘언어문자학’이라는 명칭을 제시하며 이는 자형, 음운, 훈고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저 글자를 가르치는 학문이 아님을 지적했다. ‘소학’은 옛 명칭을 답습한 것으로 ‘언어문자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소학의 경우 당시 사용하는 언어, 혹은 지금에 비해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언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언어가 변천하여 그 근본을 모색하기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황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학은 문자, 성운, 훈고의 학문으로 구성되며 이는 허신의 육서,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학문을 지칭한다고 했다. 그 역시 ‘소학’이 말미의 하찮은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장병린이 전통적 언어학을 뜻하는 ‘소학’에서 ‘언어문자학’으로의 개칭을 주장한 점은 중국 언어학사에서 중요시되었다. 이는 전통 소학의 종결과

4) “合此三種乃成語言文字之學，此固非兒童占畢年能盡者，然猶名小學，則以襲用古稱，便于指示，其實當名語言文字之學，方為確切。”《論語言文字之學》國粹學報 1906, 24期.

5) “今之所謂小學者，則中國文字聲韻訓詁之學也，許氏所謂六書也。以其繁而難學，故以教六書之學名之，今古相沿，名如是耳，初非謂其學末杪，而字之曰小學也。”黃侃述，黃焯編，《文字聲韻訓詁筆記》，上海古籍出版社，1983，24쪽.

중국 현대 언어학의 시작, 혹은 중국학자가 현대 언어학을 창건해야 한다고 자각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sup>6)</sup>되며 장병린이 중국의 현대 언어학의 시발점이 되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황학과의 소학에 대한 논의는 다만 소학이라는 명칭을 문제시한 것으로 소학이라는 학문, 혹은 그 방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학문의 명칭으로 인해 소학이 그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국한되거나 하찮은 학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염려한 점은 거꾸로 그들이 소학이라는 학문에 부여한 의의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장병린은 언어문자학으로의 개명을 주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소학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황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은 소학의 함의를 통시적으로 살피고 그 의미 변화과정을 고찰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소학연구의 가치, 의의를 재고하고 그 진정한 기능을 밝히고자 했다.

“명분을 지키는 것이 이미 태만하여 대개 소학의 쓰임은 옛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니 미천하다!”<sup>7)</sup>

“소학의 쓰임은 경에 통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sup>8)</sup>

“어떤 이는 소학에 밝은 것은 오직 고서를 읽고, 고문을 지을 수 있는 도구라 간주하지만 이는 그가 보는 것이 작은 까닭이다.”<sup>9)</sup>

“어떤 이는 소학을 다스리는 것은 다만 주, 진, 양한의 책을 읽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잘못이다.”<sup>10)</sup>

장병린은 소학은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또한 경의 뜻

6) 胡奇光, 李宰碩 譯, 《中國小學史》, 서울: 東文選, 1997.11, 485쪽.

7) “名守既慢, 大共以小學之用, 趣於道古而止, 微與!” 章炳麟, 《章太炎全集7·新方言·序》,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9.

8) “小學之用, 非專以通經而已.” 章炳麟, 《論語言文字之學》 國粹學報 1906, 文編 24期.

9) “或以爲明小學特能爲讀古書, 作古文之工, 其所見則小也.” 黃侃, 《文字聲韻訓詁筆記》, 1쪽.

10) “而或以爲治小學, 僅爲讀周秦兩漢之書, 誤矣.” 같은 책, 10쪽.

에 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님을 지적했다. 황간 역시 소학은 고서를 읽거나 고문을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밝혔다. 이처럼 장황학파는 소학은 과거 지향적거나 경에 부속되는 학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학의 진정한 기능,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학은 응당 전체를 연구해야 하며 문자는 다만 그 일면일 따름이다. …… 소학은 국고의 근본이다. 왕교의 시작은 위로는 선조들의 전적을 배우고, 아래로는 백성, 풍속에 부합한다. 어찌 필획, 문자에만 그치겠는가?”<sup>11)</sup>  
 “지금 국학을 알고자 하면 언어, 문자를 우선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언어 문자의 학문은 고대에 소학이라 칭했다.”<sup>12)</sup>

우선 장병린은 소학은 나라의 근본, 왕교의 시작으로, 위로는 상고 전적을 탐구하고 아래로는 백성과 그들의 풍속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라 간주한다. 또한 국학을 이해하고자 하면 우선 언어, 문자 즉 소학을 익혀야 함을 강조했다. 그 예로 소학을 알지 못하면 우선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역사서 해석을 위한 소학의 기능은 기존의 경전 해석을 위한 소학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장병린의 연구범위는 경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서, 제자서 등의 문헌도 포함하며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sup>13)</sup> 이처럼 장병린은 소학을 단순한 문자연구로 간주하지 않고 모든 학문의 근본으로 삼으며 학문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한 점이 특징이다.

황간은 소학의 효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 11) “小學宜全體，文字盡其一端。 …… 蓋小學者，國故之本，王教之端，上以推校先典，下以宜民便俗，豈專引筆畫，繚繞文字而已。” 章炳麟，〈國故論衡·小學略說〉，10쪽.  
 12) “今欲知國學，則不得不先知語言文字，此語言文字之學，古稱小學。” 〈論語言文字之學〉 國粹學報 1906，文編 24期.  
 13) 김월희，〈章炳麟 文學理論 研究〉，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4，25，38쪽，참조.

“소학의 효용은 무엇인가? 첫째, 서적을 이해한다. 둘째, 문사를 짓는다. 셋째, 언어를 탐구한다. …… 고로 소학의 효용은 고대의 언어를 탐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의 언어도 탐구할 수 있다.”<sup>14)</sup>

“소학은 중국 언어, 문자 중에서 정당, 명확한 해석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정당, 명확한 기원을 찾고 따라서 정당, 명확한 용법을 얻는 것이다.”<sup>15)</sup>

“소학가의 훈고와 경학가의 훈고는 다르다. 소학가가 字를 설명함에 종종 모든 의미를 아우르며 빠뜨리지 않는다. 경학가는 文을 해석함에 字의 의미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한다. …… 소학의 훈고는 원만함을, 경학의 훈고는 전일함을 중요시한다.”<sup>16)</sup>

황간은 소학연구의 의의는 서적 해석이나 작문뿐만 아니라 언어탐구에 있으며 그 범위는 고대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도 탐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소학은 정확한 해석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 기원, 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 간주했다. 또한 기존의 문헌 해석을 위한 경학적 훈고와 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소학적 훈고를 구분 짓고 이들은 연구 목적이 상이하고 따라서 그 연구 방법도 상이함을 지적했다. 즉 글자 자체를 연구하기 위한 소학적 훈고는 한 字의 모든 파생 의미를 모두 고려하는 반면, 경학적 훈고는 그 문맥에 따른 해당 글자의 의미 선택에 초점이 있다. 소학의 훈고는 독립된 글자 각각의 형, 음, 의에 근거하여 해당 글자의 모든 의미 관계를 두루 섭렵해야 하는 것이라면 경학적 훈고는 특정한 환경에서 해당 글자의 역할에 따라 의미를 선택하는 예속적 훈고임을 지적했다. 황간의 경우 소학을 경전해석만을 위한

14) “小學之效用爲何? 一瞭解書籍, 二構造文辭, 三探討語言 …… 故小學之用, 不僅可探討古之語言, 且可以探討今之語言矣.” 黃侃, 《文字聲韻訓詁筆記》 33-35쪽.

15) “小學者, 卽於中國語言文字中, 研究其正當明確之解釋, 藉以推求其正當明確之由來, 因而得其正當明確之用法者也.” 같은 책, 1쪽.

16) “小學家之訓詁與經學家之訓詁不同. 蓋小學家之說字, 往往將一切義包括無遺. 而經學家之解文, 則只能取字義中之一部分. …… 是知小學之訓詁貴圓, 而經學之訓詁貴專.” 같은 책, 215쪽.

것이 아니라 언어자체에 대한 연구로 간주한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장황학파가 소학의 명칭을 문제시 삼고 개칭을 언급한 것은 소학이라는 학문이 그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히 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들이 배우는 것, 혹은 경학에 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점차 그 의의가 퇴색되어 가는 것을 염려한 것에서 비롯된다. 장병린, 황간은 소학의 역사적 의의를 재고하고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즉 장병린은 소학을 국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기반임을 주장했으며 황간은 언어자체를 탐구하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소학이 쇠퇴하는 것을 막고 그 역사를 이어가기를 희망한 것이다. 이처럼 장황학파는 소학을 변혁, 혁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재해석을 통해 이를 보존, 계승하는 것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 III. 언어, 문자의 의의와 그 근원연구

장황학파가 소학연구의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한 점은 이들이 언어, 문자에 부여한 의미와도 연관된다. 우선 장병린은 언어문자를 전장제도, 인물사적과 함께 역사를 구성하는 3가지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sup>17)</sup> 그는 언어, 문자 자체가 역사이며 사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소학의 일단은 그 용법이 육서, 칠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펜서(Spencer)가 사회학을 연구함에 종종 다른 언어를 탐구하여 그 어근을 찾았다. 단서가 지극히 작아도 증명하는 바는 지극히 크니, 이는 왜인가? 상고 시기는 아마득하고 중고 시기는 제왕의 업적을 전하는 기록도 이미 적다. 문자, 언어에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 이는 땅 속의 돌과 같이 무형의 2가지 큰 역사이다.”<sup>18)</sup>

17) 劉麗群, 《章太炎《文始》研究》, 44쪽, 참조.

18) “卽小學一端, 其用亦不專六書七音. 頃斯賓薩爲社會學, 往往探考異言, 尋其語根, 造端至小, 而所證明者至大, 何者. 上世草昧, 中古帝王之行事, 存於傳記者

“중래 소학가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의 선후로 인한 상이함이다. ……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의 선후를 통해 사물 발생의 선후를 알 수 있다.”<sup>19)</sup>

그는 소학연구는 문자의 형, 음의 탐구에만 그치서는 안 되며 언어자체의 근본을 탐구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 예로 글자가 만들어진 순서를 통해 사물 발생의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에서처럼 언어, 문자는 그 안에 역사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고유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간주했다.

따라서 장병린은 언어와 문자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마음, 사물의 학문은 형체가 등글고 나라마다 간극이 없다. 유독 어문, 역사는 그 형체가 각이 지고 각각 자신의 나라를 전형으로 하며 다른 나라의 것을 취할 수 없다.”<sup>20)</sup>

“중국의 소학, 역사 이 2가지는 중국 특유의 학문이며 공통된 학문이 아니다.”<sup>21)</sup>

장병린은 소학, 즉 언어 문자의 연구는 역사와 함께 중국 고유의 특색을 갖춘 것으로 다른 나라와 두루 공유할 수 있는 바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문, 역사는 각 나라별로 상이하며 따라서 이는 한 나라의 특수한 학문으로 공통, 보편적일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가 서양의 언어를

---

已寡。惟文字語言留其痕跡。此與地中僵石，爲無形之二種大史。”〈致吳君遂書〉，  
《章太炎政論選集》，劉麗群，〈章太炎《文始》研究〉，47쪽，재인용。

- 19) “是從來小學家所未說的，因爲造字時代先後不同，……因造字的先後，就可以推見建置事物的先後。”〈東京留學生歡迎會演說辭〉，김월희，〈章炳麟 文學理論研究〉，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4. 36쪽，재인용。
- 20) “凡在心在物之學，體自周圓，無間方國，獨于言文史，其體則方，自以己國爲典型，而不能取之域外。”〈自述學術次第〉，〈制言〉第25期，劉麗群，〈章太炎《文始》研究〉，45쪽，재인용。
- 21) “中國之小學及歷史，此二者，中國獨有之學，非共同之學。”〈章太炎黃侃先生的文字學研究〉，李運富，〈古漢語研究〉 No2, 2004, 44쪽，재인용。

익히는 것 보다 중국어 자체의 특징을 밝히고 서양언어와 중국어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다고 여긴 점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sup>22)</sup>

장황학파의 언어연구는 언어문자가 곧 한 나라의 역사이며, 이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바탕하며 그 언어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근원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장병린, 황간은 언어연구에 있어서의 근원탐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나는 우매하여 이러한 쇠란에 섞여 古義를 잃는 것을 슬퍼하고 백성의 언어가 이치가 없는 것을 가련히 여겨 이에 《문시》를 지어 어원을 밝히고, 다음 《소학답문》을 지어 본자를 보이고, 《신방언》으로 풍속을 짚게 한다.”<sup>23)</sup>

장병린의 언어 연구는 바로 ‘옛 뜻’, ‘언어의 이치’를 잃는 것에 대한 근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원(語原)’, ‘본자(本字)’를 밝힘으로써 잃었던 시초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다. 즉 그의 언어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 근원을 향한다. 황간 역시 “모든 학문은 반드시 그 근본을 추구해야 한다. 소학이 홀로 그렇지 않겠는가?”<sup>24)</sup>라며 소학에서의 근원탐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황학파는 당시 중국의 방언 차이, 언문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근원탐구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각 지역의 다른 말은 모두 그 근본, 시작을 찾아야 하며 더 나아가 말

22) 김월희, 《章炳麟 文學理論 研究》,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7쪽, 참조.

23) “余以寡昧, 屬茲衰亂, 悼古義之淪喪, 愍民言之未理, 故作文始以明語原, 次小學學答問以見本字, 述新方言以萌俗.” 章炳麟, 《國故論衡·小學略說》

24) “一切學問皆必求其根本, 小學亦何獨不然.” 黃侃, 《文字聲韻訓詁筆記》 59쪽.

하는 방법, 정명의 방법이 각각 기준을 얻어 모두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이때 각 지역의 다른 말은 바로잡혀 일치하게 되니 어찌 범령을 세위 억지로 교정하려 하는가?”<sup>25)</sup>

“여러 지역의 문자를 같게 하고, 구어를 통하게 하고자 하면 응당 진탁 초한의 소리로 해야 한다.”<sup>26)</sup>

“지금 언어는 어지러워 남과 북이 다르다. 결국 고음을 잃지 않고 당운의 운부와 부합하는 것이 옳음에 가깝다.”<sup>27)</sup>

“음운에 있어서는 ‘남북, 시비, 고금의 통하고, 막힘을 합친다.’는 9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의 정음은 각 지역의 음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 옛 것을 해아리면 지금까지의 체계가 어지럽지 않음을 볼 수 있고 지금을 따르면 전국에 통행할 수 있다. 공동의 성운은 한 지역의 언어를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각 지역의 어긋남을 합쳐야 한다.”<sup>28)</sup>

장병린은 방언간의 차이를 지적하며 언어 통일은 그 근본, 시작을 찾아서 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진탁 초한의 소리’를 추구해야 하며 ‘고음을 잃지 않고 당운의 운부와 부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여겼다. 황간 역시 어느 특정 지역의 언어를 표준으로 삼는 것 보다는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언어변화에서 근원과 지류를 따져서 각 지역의 언어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이를 통일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이처럼 장황학파는 언어통일은 과거, 고대의 언어를 탐구하고 그 근원을 모색하여

25) “九服異言，咸宜擇其本始，乃至出辭之法，正名之方，各得準繩，悉能解諭。當爾之時，諸方別語，庶將斟如劃一，安用豫設科條，強施槩括哉。”章炳麟，《國故論衡·正言論》44쪽.

26) “夫十土同文字，而欲通其口語，當正以秦蜀楚漢之聲。”章炳麟，《廬書·方言》(徐復注《廬書詳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366쪽.)

27) “今世語言譌亂，南朔異流，終之不失古音與契合唐韻部署者近是。”王力著，李鐘振，李鴻鎮共譯，《中國語言學史》，계명대학교출판부，1983，245쪽，재인용.

28) “音韻之事，合南北是非，古今通塞，九字可以盡之。蓋中國正音在取各地之音之長而去其短。……夫酌古，則可見向來系統不亂。沿今，則可以通行全國。蓋共同之聲韻，非立一地之言以為標準，乃合各地之音參次而為之者也。”黃侃，《文字聲韻訓詁筆記》120쪽.

이를 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으며 본래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현재의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 복원을 추구한 것이다.

이는 언문일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병린은 중국의 ‘문언합일’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문언합일을 이루려면 응당 우선 방언을 고찰해서 어근을 찾고 본자를 언어야 한다. 그런 다음 典語를 편찬하여 나라에 통용시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다.”<sup>29)</sup>

장병린은 문언합일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방언을 고찰해서 어근, 본자를 찾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류를 편찬하여 나라에 통용시킴으로써 비로소 문언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다.

장황학파는 언어통일, 언문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근본을 탐구해야 한다고 간주했다. 금언에 대한 개혁은 필시 고어, 근원탐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겼다. 이는 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표상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언어에 중국의 전통적 본질이 있다고 간주하고 본래의 모습을 보존, 계승하고자 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들이 서양의 언문일치 방법을 따르거나 혹은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과는 연관된다.<sup>30)</sup>

장황학파는 언어, 문자를 역사와 함께 중국 고유의 특색을 담은 것으로 여기며 그 민족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어의 특수성을 잃게 되면 이는 민족성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그 특수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여겼다. 특히 장병린은 당시 중국의 언어는 만주족과 같은 이민족에 의해 변화, 오염되었다고 간주했으며 그 영향력으로부터 중국의 언어를 지켜내고 고유의 모

29) “果欲文言合一，當先博考方言，尋其語根，得其本字，然後編爲典語，旁行通國，斯爲得之。”〈博征海內外方言告白〉 김월희, 《章炳麟 文學理論 研究》, 107쪽, 재인용.

30) 章炳麟, 《國故論衡·正言論》 참조.

습을 회복, 보존하고자 했다. 그는 언어 순수주의를 지향하며 고대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유일한 중국 언어의 본래 모습을 되찾음으로써 중국 고유의 민족성,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족의 민족적 특색을 지켜나가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장황학파의 언어연구는 근원탐구에 중점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 의의가 있었다.

#### IV. 근원연구의 방법론

다음은 장황학파의 언어연구 특히 근원탐구에 있어서 그들의 연구방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첫째, 장황학파는 언어 발생적 차원에서 그 기원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점이 특징이다.

“언어는 허구에 근거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말을 부름에 말이라 하고, 소를 부름에 소라 하는 것은 반드시 맘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며 언어는 반드시 뿌리가 있다.”<sup>31)</sup>

“만물이 이름을 얻는 것은 각각 이유가 있다. 비록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라도 우연히 합쳐진 것이 아니다. 그 연고를 찾는 것이 곧 어근을 찾는 것을 일컫는다.”<sup>32)</sup>

“이름을 지음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언어의 기원이 어찌 유래가 없겠는가? 유래가 없다면 그 사물이 없다.”<sup>33)</sup>

“언어는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근원이 있다.”<sup>34)</sup>

31) “語言者，不憑虛起。呼馬而馬，呼牛而牛，此必非恣意妄稱也，諸言語皆有根。”章炳麟，〈國故論衡·語言緣起說〉 31쪽.

32) “蓋萬物得名，各有其故，雖由約定俗成，要非適然偶會，推求其故，即求語根之謂也。”黃侃，〈文字聲韻訓詁筆記〉 195쪽.

33) “是則制名皆必有故，語言緣起，豈漫然無所由來，無由來即無此物也。” 같은 책, 59쪽.

34) “凡語言非一人所能造，必有其根。” 같은 책, 137쪽.

장병린, 황간은 언어의 기원을 논의하며 다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언어는 반드시 근원이 있으며 사물과 언어, 명칭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즉 언어는 수의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연관성에 근거한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언어의 근원은 실체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근을 탐구함으로써 언어와 사물의 이와 같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 둘째, 언어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물과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즉 언어는 연원을 갖고 있으며 그 실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공인을 받은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사물과 언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물이 명칭을 얻는 것은 대개 접촉에 의한 것이다. 접촉으로 느낀 바가 다른 것은 시각, 청각을 동탕하고 영혼을 현혹하여 반드시 이에 특이한 명칭을 부여하게 된다. 구분되는 다른 점이 없는 것은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발성의 말로 명명한다.”<sup>35)</sup>

“이로써 말하면 짐승 부류에 있어서 형태, 성질이 크게 다르면 특이한 명칭을 주었고, 형태, 성질이 비슷하면 발성의 명칭을 준다. 인류도 그렇다. 이로써 언어의 나뉘는 접촉에서 따르거나 거스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장병린은 언어는 감각 기관에 주어지는 자극에 의한 것이라 여겼다. 해당 사물이 기타 사물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경우에는 그 특징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하는 명칭을 준다. 일례로 새와 같이 특별한 소리를 내는 부

35) “物之得名, 大都由于觸受. 觸受之靈異者, 動蕩視聽, 眩惑縈魄, 則必與之特異之名, 其無所靈異者, 不與特名, 以發聲之語命之.” 章炳麟, 《國故論衡·語言緣起說》 32쪽.

36) “由是言之, 施於獸類者, 形性絕異, 則與之特異之名, 形性相似, 則與之發聲之名. 施於人類者, 種類絕異, 則與之特異之名, 種類相似, 則與之發聲之名. 以此見言語之分, 由觸受順違而起也.” 같은 책, 33쪽.

류는 그 소리를 명칭으로 삼는다. 즉 ‘足足’이라 우는 새를 ‘雀’라 하고, ‘鵲鵲’이라 우는 새를 ‘鵲’이라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명칭으로 삼는 것이다. 즉 소리를 모방하는 것을 통해 그 명칭이 정해졌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과 언어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발성, 즉 허사로 명명한다고 했다. 그 예로 ‘兄’, ‘哥’와 같은 호칭이나 ‘爾’, ‘乃’, ‘若’과 같은 인칭대명사는 발성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문자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간 역시 자음의 기원은 대략 2가지로, 감정을 나타내는 음과 사물의 형, 소리를 모방하는 음이 있다고 했다. 즉 태고의 언어에는 부르짖는 소리, 회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의 소리, 그리고 사물의 움직임, 소리를 모방하는 것이 있었으며 이는 모두 사물 명칭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장병린과 황간은 유성언어의 발생 기원에 대한 고찰했으며 이는 현재의 자연발성음설, 의성음기원설과 등과도 일치한다. 중국에서의 언어 발생에 대한 논의는 董仲舒가 “이름은 聖인이 천의를 나타내는 것이다.[名則聖人所發天意.]”고 주장한 정도에 그친다. 명칭에 대한 논의가 다소 진행되었으나 대개 사회적, 정치적 명분을 논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 도덕적 가치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처럼 중국 전통 언어학에서 언어 발생 차원에서의 근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에 비해 장황학파의 언어기원론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은 유물주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체와 언어, 대상과 명칭 간에는 유기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소위 발성에 의한 명칭은 실상 대상과 유기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실제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형상과 소리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예를 들면 황간은 음이 사물의 형상을 본 뜬 것으로는 ‘果’를 예로 들어 이 음으로 길고 둥근 형상을 본 뜬 것이라 여겼다. 이처럼 형을 본 뜬 음은 형에 의거하고 귀속되는 것(재료)에 의해서는 구분하지 않으며 이는 荀子가 “사물 가운데 같은 형상이나 말미암은 바가 다른 것은 하나의 명칭을 부여한다.[物有同狀而異所者，予之一名.]”고 한

것과 같은 이치라 지적했다.<sup>37)</sup> 하지만 이는 ‘果’의 음과 그 형상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기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형상과 소리가 정착된 후에 이와 같은 형상의 물건을 같은 음으로 부르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언어운용 차원에서 어휘간의 근원을 모색한 것이다.

둘째, 전통 언어학의 연구범위가 경전으로 제한된 것에 반해 장황학파는 실제 언어를 중요시 여겼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활용했다. 우선 언어와 문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했다.

“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언어가 우선한다. 문자는 언어를 대신하며 각 각 그 소리를 따른다.”<sup>38)</sup>

“문자는 언어에 기반하며 문자의 시작은 상형, 지사이다.”<sup>39)</sup>

장황학파는 언어가 문자보다 우선하고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 근원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도 언어를 중시했다. 이는 장병린의 《문시》에서 근원탐구의 바탕이 되는 이론에 해당한다.

“글자가 변하고 번잡해도 그 언어는 반드시 근본 하는 바가 있다. 의미가 인신하는 것은 비슷한 소리로 다른 어휘로 변하고, 다른 글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언어 문자가 만들어지는 규칙이니 이에 《문시》를 저술한다.”<sup>40)</sup>

“학문의 길은 응당 문자를 추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자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당 나아가 언어에서 구해야 한다. 언어는 말미암은 바가 있으니 ‘人’과 ‘仁’, ‘天’과 ‘顛’은 의미가 연결되어 근원이 있다.

37) 黃侃 編著, 《黃侃論學雜著》 94쪽, 참조.

38) “字之未造, 語言先之矣. 以文字代語言, 各循其聲.” 章炳麟, 《國故論衡·轉注假借說》 36쪽.

39) “文字之基, 在於語言, 文字之始, 則爲象形指事.” 黃侃, 《文字聲韻訓詁筆記》 198쪽.

40) “字雖轉繁, 其語必有所根本, 蓋義相引伸者, 由其近似之聲, 轉成一語, 轉造一字, 此語言文字自造之則也, 於是始作文始.” 章炳麟, 〈自述學術次第〉, 《制言》 第25期, 趙振鐸, 《中國語言學史》 454쪽, 재인용.

이로써 근원을 모색하면 언어체계가 질서 정연함을 깨닫는다. …… 이에 소리에 근거해 部를 나누어 순서대로 《문시》 9권을 짓는다.”<sup>41)</sup>

그는 글자가 변잡해도 언어의 근본이 있음을 강조하며 의미의 인식, 소리의 변화에 근거하여 언어[語]가 생기고 다음 문자[字]가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문자는 언어를 담은 것이므로 문자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언어가 말미암는 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병린은 문자는 언어를 근본으로 하며 복잡한 문자가 언어의 근본을 통해 정리될 수 있다고 간주했다. 그 기원을 탐구함에 있어서도 언어와 문자의 기원을 구분했으며 언어의 기원을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문자 기원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언어의 기원을 탐구하고자 했다. 또한 장황학파의 언어연구에서 방언, 속어, 백화, 구어 등은 옛 언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어휘와 고대 어휘를 연결하는 고리, 근원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간주되어 적극 활용되었다.

셋째, 장황학파는 새로운 이론, 개념을 도입하여 어휘를 분류하고 어휘 운용상의 근원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장병린은 인도의 勝論<sup>42)</sup>에 근거하여 각 어휘를 ‘實’, ‘德’, ‘業’의 요소로 분류한다. ‘實’은 오늘날의 명사, 체사, ‘德’은 성질, 형상을 나타내는 형용사, ‘業’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하며 ‘實’, ‘德’, ‘業’의 연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의 實의 명칭은 반드시 그 德과 같으며 그 業과 연관된다. 고로 사

41) “又以爲學問之道，不當但求文字，文字用表語言，當進而求之語言。語言有所起，人仁天順，義牽有緣，由此尋素，覺語言統系秩然……於是以此聲爲部次造文始九卷。”〈記本師公自述治學之功夫及志向〉，《制言》第25期，楊潤陸，〈文始略說〉，《北京師範大學學報》1989，No 4，43쪽，재인용.

42) 인도철학의 일파인 마이세시카(Vaisheshika) 학파의 학설로 한역불전에서는 ‘승론’이라 번역했다. 이 학파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원뜻으로 하는 구의(句義)에 대한 설을 전개했다. 실체, 성질, 운동, 보편, 특수, 결합 6개의 원리로 현상계의 여러 사물의 구성을 해명하고자 했다. 실체, 성질, 운동은 문법 요소 명사, 형용사, 동사에 대응한다.

물의 명칭은 반드시 이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태고의 시대에 언어는 오로지 實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德, 業의 명칭은 후에 생겼다. 고로 ‘牛’, ‘馬’의 명칭이 가장 우선하고 ‘武’, ‘事’를 지칭하는 말은 ‘牛’, ‘馬’에서 파생하여 생긴 것이다. 文이 적어서 德, 業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實에 이름을 베푼다.”<sup>43)</sup>

“언어의 시작은 응당 우선 天官에서 기원하며 그러한 즉 德을 표현하는 명칭은 가장 우선한다. 그러나 문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고에는 實을 표현하는 명칭이 우선이고, 다음 충분하면 德, 業을 표현하는 명칭이 인한다. 후대에는 德, 業을 표현하는 명칭이 먼저 생기고 충분하면 實을 표현하는 이름이 기인한다. 이런 까닭에 동일한 소리의 부류는 그 의미가 종종 유사하다.”<sup>44)</sup>

우선 통시적으로 태고 시대에는 사물의 명칭, 즉 實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우선하고 이에 근거하여 德, 業에 관계되는 명칭이 생겨난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德, 業의 말이 먼저 생겨나고 후에 실체의 이름을 만들게 되었다고 여겼다. 또한 장병린은 언어와 문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언어의 경우 德의 표현이 우선하고 문자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에는 實, 후대에는 德, 業이 우선한다고 했다.

한편, 황간은 품사 개념을 도입하여 어휘간의 근원관계를 설명했다.

“옛날에는 명사는 동사, 형용사와 서로 관련되며 말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sup>45)</sup>

“동사, 형용사는 명사의 근원이다. 고로 문자의 근원을 추구함에 허자를

43) “一實之名, 必與其德若, 與其業相麗. 故物名必有由起. 雖然太古草昧之世, 其言語惟以表實, 而德業之名爲後起. 故牛馬名最先, 事武之語, 乃由牛馬孳乳以生. 世稍文, 則德業之早成, 而後施名于實.” 章炳麟, 《國故論衡·語言緣起說》 31쪽.

44) “語言之初, 當先緣天官, 然則表德之名最夙矣. 然文字可見者, 上世先有表實之名, 以次桃充, 而表德表業之名因之, 後世先有表德表業之名, 以次桃充, 以表實之名因之. 是故同一聲類, 其義往往相似.” 章炳麟, 《國故論衡·語言緣起說》 33-34쪽.

45) “古者, 名詞與動詞靜詞相因, 所從言之異耳.” 黃侃 編著, 《黃侃論學雜著》, 165쪽.

탐구해야 하며 허자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은 음성에서 기원한다. 세 가지는 음운을 벗어날 수 없다.”<sup>46)</sup>

명사, 동사, 형용사는 서로 관련되며 동사, 형용사가 명사의 근원이 되며 따라서 허자, 즉 동사, 형용사를 탐구해야한다고 간주했다. 음운 관계를 통해 허자를 탐구하고 이와 문자의 근원 관계를 탐구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처럼 상황학과의 근원연구는 유성 언어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고 방언, 속어 등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승론, 품사 개념을 도입해서 어휘를 분류하고 언어 운용 차원에서 어휘 간의 연원관계를 논의했다. 이와 같은 이론, 방법은 전통 언어학과 상이하며 상황학과는 서양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장병린은 유럽의 언어를 배울 때 어근을 찾아 그리스어,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국어연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근원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한 점<sup>47)</sup>으로 보아 서양의 비교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황학과는 외부 언어학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전통 언어학과는 상이한 방법으로 어원학의 이론을 체계화했다.

다만 언어근원에 대한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상황학과의 실제 근원 분석에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 그 예로 《문시》 1권의 ‘爲’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실질적 근원연구 방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설문》에서 “爲는 어미 원승이다. 그 짐승이 잘 잡는다. ‘爪’는 어미 원승이의 형상이며 아래도 어미 원승이 형상이다.”라 했다. 古文에서 𠄎으로 쓰니 어미 원승이가 마주보는 것이다. 이는 純象形이다. 寒으로 對轉하여 ‘𧈧’이 되며 ‘잘 당기다’는 뜻으로, ‘禺의 부류’이다. 어미 원승이는 잘 잡고 동작에 만족함이 없으니 고로 孳乳로 ‘僞’가 되며 ‘詐’의 뜻이다. ‘詐

46) “而動詞形容詞者，亦即名詞之根源也。故求文字之根源，當推諸虛字，求虛字之根源，當自音聲，則三者始終不離乎音韻也。”黃侃，《文字聲韻訓詁筆記》218쪽.

47) “世人學歐羅巴語，多尋其語根，溯之希臘羅甸，今於國語顧，不欲推見本始。”章炳麟，《章太炎全集7·新方言 序》.

僞'는 '作爲'와 같다. 寒으로 對轉하여 孳乳로 '諛'이 되며 '詐(속이다)'의 뜻이다. '幻'과 연계된다. '爲'에 '법'의 뜻이 있어, 孳乳로 '儀'가 되며 '度'이다. 寒으로 轉하여 '履'이 되며 '履法'의 뜻이다."<sup>48)</sup>

위에서와 같이 《문시》에서는 《說文解字》의 獨體를 취하여 初文, 準初文<sup>49)</sup>으로 삼고 이를 기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문자를 그 음, 의미 관계에 근거하여 '變易', '孳乳'로 제시한다. 變易은 '音義가 서로 대응하는 것(音義相讎)', 孳乳는 '義이 음에서 나오는 것(義自音衍)'이라 정의했다.<sup>50)</sup> 《문시》는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 각 글자 간의 연원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하나의 근원으로 귀속시키고자 한 점에서 기존의 어원연구와 구별된다. 하지만 소리와 의미 관계에 근거하여 글자들의 파생, 가차 관계를 설명한 점은 실상 전통적 훈고 방법, 특히 음운을 통한 훈고를 중시한 청대 언어학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또한 《문시》에서 근원의 시발점으로 《설문해자》의 獨體를 취한 점은 앞에서 그가 문자에 구속되어서는 안 되며 언어를 탐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문시》는 그 기점을 모두 《설문해자》의 초문으로 삼아 어원은 모두 지사자, 상형자이며 이는 형을 어근으로 간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가 연구한 바는 언어의 근원이 아닌, 문자의 근원이다. 따라서 《문시》는 그가 본래 의도한 어근연구라 할 수 없으며 언어의 근원과 문자의 근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함께 논의된다는 점은 《문시》가 비판 받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황간은 장병린의 논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다. 그는 《문시》

48) “說文‘爲，母猴也。其爲禽好爪。爪，母猴象也。下腹爲母猴形。’古文作，象母猴相對，此純象形也。對轉寒，變易爲媛，善援，禹屬，母猴好爪，動作無厭，故孳乳爲僞，詐也。詐僞猶作爲，對轉寒孳乳爲諛，詐也，與幻相係。爲之有法，孳乳爲儀，度也。轉寒爲履，履法也。”章炳麟，《章太炎全集7·文始》，171쪽.

49) 獨體 가운데 생략, 변화한 것, 합체상형, 지사, 형이 왜해된 것, 같은 형태를 중복시킨 것을 일컫는다.

50) 章炳麟，《章太炎全集7·文始》 紋例.

를 통해서는 문자만을 논할 수 있고 언어를 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문서》에서 논하는 것은 자형의 근원이며 자음, 자의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羊과 祥’, ‘火와 燬’ 중에서 문자로 논의할 경우에 ‘羊’, ‘火’가 우선하며 언어로 논의할 경우는 ‘祥’, ‘燬’이 우선한다고 여겼다. 이는 그가 동사, 형용사가 명사에 앞선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치한다.

황간은 언어의 근원과 문자의 근원을 語根, 本字로 구분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회의, 형성의 자는 반드시 상형, 지사를 근본으로 한다. 상형, 지사의 자는 반드시 아직 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언어를 근본으로 한다. 고로 회의, 형성으로 상형, 지사의 자를 추구하는 것은 그 본자를 추구하는 것이다. 상형, 지사의 자로 언어 음성의 뿌리를 추구하는 것은 어근을 찾는 것이다.”<sup>51)</sup>

“지사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 고대시기 사람들은 느끼는 바가 있으면 언어로 발생, 감탄하는 것이 우선하며 이로 말미암아 사물의 형태를 형용하는 말이 생긴다. 이미 그 실체가 있으면 언어의 뿌리를 도모하여 이로써 이름을 정한다. 따라서 상형이 반드시 지사에 우선할 수 없다.”<sup>52)</sup>

황간은 문자, 언어 각각의 근원개념을 구분했다. 또한 근원 탐구는 우선 본래의 음을 분명히 밝히고 다음 본자를 찾고, 이에 근거해 어근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본자는 각각의 글자가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라면 어근은 여러 글자가 포함되는 공통된 것이라 했으며 본자를 밝힐 수 있으면 문자학이 통하고 어근을 밝힐 수 있으면 성음의 학이 통한다고 했다.<sup>53)</sup> 이처럼 본자와 어근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밝혔다. 다만 황간

51) “凡會意形聲之字，必以象形指事字爲之根。而象形指事之字，又必以未造字時之語言爲之根。故因會意形聲以求象形指事之字，是求其本字也。因象形指事以推尋語言音聲之根，是求其語根也。” 黃侃，〈文字聲韻訓詁筆記〉 57쪽.

52) “指事之字，當在最先。生民之草，官形感觸，以發詞言感歎居前，由之以爲形容物態之語。既得其實，乃圖言語之便，爲之立名。是故象形之字，必不得先於指事。” 黃侃，〈黃侃論學雜著〉 5쪽.

53) 같은 책, 59-60쪽.

은 더 나아가 지사와 상형, 그리고 어근의 관계를 造字의 이치와 어원이론을 연결 지음으로써 설명하고자 했지만 그 관계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했다.

장황학파는 서양 언어학의 영향으로 언어 발생적 차원에서 유성 언어의 기원을 논의하며 승론, 품사 개념을 도입하여 어휘를 분류하고 어휘간의 파생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장황학파의 각 글자에 대한, 실질적 근원탐구는 어휘 간의 음, 의미의 관계에 근거하여 가차자, 인신자의 본자를 찾는 것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청대 聲訓, 因聲求義 등의 방법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론적 논의가 실질적 근원분석에서는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황학파의 근원연구는 서양 언어학과 전통 언어학의 조우,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중국 어원학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 V. 결론

청말 시기 중국은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 전통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다방면에서 신구의 개혁을 일으켰다. 이는 언어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렵 서양의 표음문자, 문법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어문 연구자들의 주목을 끄는 한편, 소학은 청대의 흥성기를 끝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기 장황학파는 소학의 의의를 고찰하고 이를 모든 학문의 기초, 혹은 언어 전문 학문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소학연구의 당대적 가치를 모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황학파는 언어문자는 중국의 민족성, 역사성이 담고 있으며 따라서 고유의 언어를 회복, 보존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근원연구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들의 어원연구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서양의 언어기원설, 비교 언어학, 품사 등의 개념을 수용하여 어원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점, 한편 실질적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을 응용, 적용하기 보다는 전통적 훈고방법에 근거한 점이다. 장황학

파의 언어연구는 장병린, 황간의 국수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언어관 및 중국의 언어학이 서양의 언어학을 수용하고 전통에서 현대로의 전환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References>

- Huang Kan, Huang Zhuo edit, *Wenzi Shengyun Xungu Biji*, Shanghai Guji Chubanshe, 1983
- Huang Kan, Huang Kan Lun Xue Zhazu, Taipei: Xue Yi Chubanshe, 1969
- Hu QiGuang, Li ZaiShuo translate, *A history of Traditional Chinese Linguistics*, Seoul: DongmunSun, 1997.
- Kim WeolHoi, *Zhang Binglin Wenxue Lilun Yanjiu*,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1994.
- Liu LiQun, *Zhang Taiyan Wenshi Yanjiu*, doctorate thesis, Beijing Normal University, 2009.
- Pu ZhiZhen, 1987, 1990, Kim HyunCheol translate, *A 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Seoul: Shinasa, 1997.
- Wang Li, Li ZhongZhen, Li HongZhen translate, *A 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Daegu, KeiMyung University, 1983.
- Zhang Binglin, *GuoGuLunHeng*,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2003, 7-48.
- Zhang Binglin, XuFu edit, *Qiu Shu Xiangzhu*,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2000.
- Zhang Binglin, *Zhang Taiyan Quanjiz*, Shanghai: Shanghai Renmin Chubanshe, 1999.

Zhao ZhenDuo, *A 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ShiJiaZhuang, Hebei Jiaoyu Chubanshe, 2000.

<Abstract >

This article analyzes linguistic studies of Zhang-Huang School. Linguistic studies of Zhang Binglin and Huang Kan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At first, Zhang-Huang School considers historical implication of ‘Xiaoxue (Tranditional Chinese Linguistics)’, and attempts to give consequence to ‘Xiaoxue’. Second, Zhang-Huang School regards language and character as one nation’s history, so emphasizes the study of origin of Chinese language. And they strive to protect the purity of Chinese language. Lastly, Etymology of Zhang-Huang School was influenced by western language theory, and also influenced by traditional linguistics.

Key Words : 장병린(Zhang BingLin), 황간(Huang Kan), 소학(Tranditional Chinese Linguistics, Xiaoxue), 어원학(Etymology)

